

【논문】

칸트의 관념론 반박과 의식의 초월성

백 승 환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인식론

【주요어】 데카르트, 칸트, 경험적 자아, 초월적 자아, 인식적 정당화, 의식적 정당화

【요약문】 전비판기 시절부터 칸트의 사유를 위협했던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는 이후 『순수이성비판』 제2판의 <머리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철학의 추문’으로까지 묘사되어 결국 <관념론 반박>이란 장을 통해 재조명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관념론 반박>에 기대 칸트가 주장했던 외적 경험에 대한 내적 경험의 필연적 의존은 이후 우리에게 외감의 현존을 아무 논증 없이 강요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실패한다. 그렇다면 결국, 칸트는 자신을 전비판기 시절부터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무릎을 꿇고 마는가? 이러한 비판적 전망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이 본 논문을 통해 응변코자 하는 나의 최종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나는 먼저 <관념론 반박>에 나타난 칸트의 사유와 그것의 함축적 의미를 면밀하게 파헤쳐보도록 할 것이다. (Ⅱ) 다음으로 <관념론 반박>의 논변에서 보아진 칸트적 사유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후 조각글을 통해 칸트의 관념론 반박은 어떻게 보다 탄탄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가이어P. Guyer의 논증에 기대 보이도록 할 것이다. (Ⅲ) 그러나 이러한 가이어의 논증 역시 까랑띠L. Caranti에 의해 제기된 반론에 직면하게 되며, 결국 칸트의 관념론 반박이 <관념론 반박>의 정신을 계승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의식되나 인식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모든 사유에 수반하는 초월적 통각에 대한 새로운 주의가 필요함이 역설될 것이다. (Ⅳ) 이제 나의 논의가 성공을 거두면, 칸트의 사유는 독단론과 회의론의 두 철학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서도 초월적 통각에 의한 ‘의식적 정당화’ 차원에서 ‘소극적’ 방식으로 진정한 관념론 반박을 달성하게 됨이 보아지게 될 것이다.

I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칸트의 노력은 1755년에 발간됐던 그의 전집(이하 논문1)에서부터 계속되어 『순수이성비판』 제2판의 <머리말>에서 다시 ‘철학의 추문 ein Skandal der Philosophie’에 맞서는 움직임으로 묘사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추문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 인식 주관자의 밖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외부 사물의 현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의심으로 나타난다.²⁾

-
- 1) 구체적으로는 “Nova Delucidatio”(1755)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술원판 칸트전집(이하 논의에서 다시 언급될 경우에 ‘AA’로 약칭한 후 콜론을 사이에 두고서 관련된 전집의 권수와 쪽수를 병기한다) 385-416쪽 내용들을 참조하라. 이에 더해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관례대로 초판(1781)의 경우에 알파벳 ‘A’에 뒤이어 쪽수를 기록하고, 재판(1787)의 경우에 알파벳 ‘B’에 뒤이어 쪽수를 기록하며, 원문에서 격자 표기되어 있는 곳은 길게 표기하여 인용한다. 또한 칸트의 저술들에 대한 국역본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논의의 전개상 특별한 무리가 없는 한, 백종현 교수의 번역과 제안에 따르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인 서지사항들에 대해서는 본고의 말미를 참조하라.
 - 2) 한 심사위원께서 <관념론 반박>은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이 버클리적 관념론과 같은 내용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고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해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내가 본고의 논의를 <관념론 반박>의 텍스트에 기초해 전개하면서도 그것의 일차적 목표를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의 극복에 두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다. 칸트 연구자들 대부분이 지지하는 바와 같이, <관념론 반박>은 본래 버클리적 관념론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지만 칸트가 버클리G. Berkeley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관념론 반박>의 논의는 자연스레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를 잉태하게 됐고, 때문에 논의의 초점이 다시 데카르트적 관념론과의 대결에 맞춰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관념론 반박>의 서두를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버클리의 관념론이 다시 언급되지 않는 이유이다. 추측해보건대, 칸트는 자신의 초월적 관념론을 위협하는 양 극단에 놓인 철학으로 버클리의 교조적[독단적] 관념론과 데카르트의 미정적[회의적] 관념론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그래서 초판의 <넷째 오류추리>를 통해서는 데카르트적 관념론은 극복하였지만 자신이 점차 버클리적으로 되어 가는 것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재판의 <관념론 반박>을 통해서는 버클리적 관념론은 극복하였지만 자신이 점차 데카르트적으로 되어 가는 것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다시 말해, 자신의 초월적 관념론을 양 극단의 관념론 사이에 정당하게 위치시

관념론이 형이상학의 본질적 목적과 관련해서—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밖의 사물들의 [...] 현존을 단지 믿음에 근거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의심하기에 이르는 때 그에게 아무런 만족할만한 증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나 철학과 보편적 인간 이성의 추문으로 남아 있다. (B xxxix)

이러한 철학의 추문에 맞서 칸트는 데카르트가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의 내적 경험조차도 결국 외적 경험의 전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인간의 사유가 데카르트적 회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B 275)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말해, 데카르트적 회의주의가 제기된 이래 항상 우리에게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외적 경험이 어떻게 그것의 실존적 확실성을 보장받아 도리어 가장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던 내적 경험의 확실성을 보증할 수 있게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칸트적 사유를 쫓아 대답하는 것이 내가 이 논문을 통해 보이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나는 무엇보다 먼저 칸트가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와 가장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씨름하고 있는 재판의 <관념론 반박>을 살펴보며,³⁾ 그러한 관념론 반

키고자 하는 것이 칸트의 최종 목표이자 과제인데, 『순수이성비판』의 초판과 재판의 논의를 통해서도 결코 이에 대해 성공적 대답을 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족은 이후 조각글에서도 계속 표출되고 이어져서 칸트의 관념론 반박적 사유를 보다 날카롭게 다듬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아주 분명하다. 칸트로 하여금 <관념론 반박>을 작성토록 한 표면적 이유는 바로 버클리적 관념론의 극복이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버클리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거지게 된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대한 처방인 것이다. 만약 칸트가 자신이 이미 발견했던 수반 의식으로서의 초월적 통각의 의미를 <관념론 반박>에서도 되새겼더라면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양 극단의 관념론 사이를 배회함으로써 <관념론 반박>은 결국 실패로 치닫게 됐다. <관념론 반박>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익명의 한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 3) 이하 논의에서 『순수이성비판』의 재판에서 기술된 구체적 제목 아래 이루어진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대한 논박을 일컫는 경우(B 275-279)에는 이를 <관념론 반박>이라 표기하고, 그 이외에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를

박의 구조를 통해서도 결국 칸트 그 자신의 독단적 전제만을 강요하고 역설하는 것이 될 뿐이기에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는 여전히 유효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도록 할 것이다. (II) 그 다음으로 <관념론 반박>에서 보아진 논변의 문제성과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칸트의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맞서는 노력을 살펴 보며, 이를 가이어P. Guyer의 힘을 빌려 재구성해보도록 하겠다. (III) 그렇지만, 가이어의 논증 역시 까랑띠L. Caranti에 의해 심각한 반론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반론을 극복하여 칸트의 진정한 관념론 반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의식[주체]’과 ‘경험적 대상[객체]’을 한 데 묶는 초월적 통각을 통한 가장 근원적인 정당화 작업이 필요함을 논설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정당화 작업의 전부라고 생각되어 왔던 ‘인식적 정당화’ 작업으로부터 ‘의식적 정당화’ 작업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만 함이 강조될 것이고, 후자는 전자를 정초하는 보다 근원적인 것이지만, 그 정당화의 성격이 경험적이 아닌 초월적인 것이기에, 이는 결국 적극적인positive 함축이 아닌 소극적인negative 함축만을 갖게 됨이 지적될 것이다. (IV)

전비판기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던 칸트의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살펴보았을 때, 만약 내가 칸트적 사유 편린들의 재구성을 통해 이 논문에서 제시한 논증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인간이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경험적 굴레의 숙명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숙명을 사유의 극한에로까지 밀어 초극하려 하는 인간의 의식의 초월적 성격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칸트의 솔직한 철학적 고백을 들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동안 칸트의 전 초월철학 체계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내왔던 골수 회의주의자들에게 인간의 의식의 초월적 성격을 통해 그것의 근원에서부터 타당하게 정초된 진짜 메타 형이상학real meta-metaphysics의 정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극복하기 위한 칸트의 여타 모든 노력을 일컫는 경우에는 이를 ‘관념론 반박’이라 표기하여 양자를 구별한다.

4) 내가 여기에서 ‘진짜 메타 형이상학’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관념론 반박>

II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대한 칸트의 도전을 살펴보기 위해 이제 제2판의 <관념론 반박>에 기술된 논의의 구조에 집중해보도록 하자. <관념론 반박>은 크게 그것의 전체 논의를 대표하는 ‘정리’ 하나, 이러한 정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함축적 ‘증명’ 하나, 그리고 이에 대해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는 ‘주해’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논증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보아지는 것과 같다.

[정리]

나 자신의 현존에 대한 순전한, 그러나 경험적으로 규정된, 의식은 내 밖의 공간상의 대상들의 현존을 증명한다. (B 275)

[증명]

- ㉠ 나는 나의 현존을 시간상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의식한다.
- ㉡ 모든 시간 규정은 지각에서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을 전제한다.
- ㉢ 그러나 이 고정불변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나의 현존재는 시간상에서 이 고정불변적인 것을 통해 비로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

을 통해 드러나는 칸트의 이론철학 일반의 논의가 인간의 의식의 초월적 성격에 정초됨으로써 인식론과 존재론의 근본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초월적 통각에 기대는 이러한 논의의 구조가 거짓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진짜’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초월적 의식의 존재를 부정한 채 경험적 의식의 존재에 의거하여서만 인식론과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여타 철학사조들도 형이상학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때, 이와 구별하여 오히려 그러한 철학사조들이 주장하는 형이상학조차 칸트가 말하는 의식의 초월적 성격에 의해서야 비로소 진정한 형이상학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형이상학이란 의미에서 ‘메타 형이상학’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 5) 이 부분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칸트는 재판의 <머리말>에서 ㉢을 “그러나 이 고정불변적인 것은 내 안의 직관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마주칠 수 있는 나의 현존의 모든 규정근거들은 표상들이고, 그것들은 표상들이란 한 그 자체로 그것들과 구별되는 어떤 고정불변적인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고정불변적인 것과 관련해서 현상들의 바깥이, 그

㉔ 그러므로 이 고정불변적인 것의 지각은 오직 내 밖의 **사물**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내 밖의 사물에 대한 한낱 **표상**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시간상에서 나의 현존재 규정은 내가 내 밖에서 지각하는 현실적인 사물들의 실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㉕ 그런데 시간상에서 의식은 이 시간규정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과 결합되어 있다.

㉖ 그러므로 그것은 시간규정의 조건인, 내 밖의 사물들의 실존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의 현존에 대한 의식은 동시에 내 밖의 다른 사물들의 현존에 대한 직접적 의식이다. (B 275- 276)

위의 [정리]에서도 잘 표명되고 있는 것과 같이, 칸트에 따르면 주관의 ‘경험적 의식’은 객관의 ‘실질적 현존’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증명]을 통해, 다시 후자에 의해 전자가 의미 있게 정초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즉, 데카르트적 회의 이후 강조되어 왔던 사유와는 달리, 이제 내적 경험 일반은 오직 외적 경험 일반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B 279) 그렇지만, 우리의 상식은 내적 경험이 외적 경험의 인과적 영향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직관을 받아들이기에 보다 더 확실한 전자와 보다 덜 확실한 후자가 구분되어야만 했고, 이 때문에 오직 내적 경험의 확실성에 기대 있는 우리에게 외적 경험의 확실성은 항상 회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보다 덜 확실한 외적 경험을 모두 보다 더 확실한 내적 경험에 환원시켜 파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관념과 그 관념이 발원된 대상을 상징하는 이중 존재론의 난점이 파기됨으로써 모든 회의주의로부터 벗어날 수야 있겠지만, 그 대신에 모든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에 환원되는 아무 근거 없는 현상주의가 창궐할 것이기 때문이다.)⁶⁾ 이처럼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와 주관적 현상주의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칸트는 양자를 통한 절충점을 찾기 위해 ㉗을 지시한다.

러니까 현상들이 바뀌는 시간상에서의 나의 현존이 규정될 수 있겠다”와 같이 고쳐 적고 있다(B xxxix).

- 6) 이러한 관점을 칸트는 버클리의 철학에서 보고 있는 듯하다. 칸트에 따르면, 버클리의 관념론은 “공간을, 불가분의 조건으로서 공간이 그에 부착해 있는 모든 사물들과 함께, 그 자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간상의 사물들 또한 순전한 상상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묘사된다(B 274).

칸트에 따르면, ㉠은 시간상에 놓인 나의 경험적 의식에 대한 부연이다. 다시 말해 그는, 흄D. Hume과 동일한 관점에서, 내적 지각에서 우리의 상태의 규정들에 따른 자기에 대한 의식은 한낱 경험적empirisch이고 전변적wandelbar이라 주장한다. (A 107) 그렇기에, ㉠은 “초월적 의식에 의해 지지되는 경험적 의식으로서의 나는, 내가 일정한 시간적 질서에 의해 규정된 표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⁷⁾ 여기에서 규정된 표상들이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를 갖고서 계기하는 나의 경험들을 의미한다. 즉, 나는 오직 무규정의 표상들이 일정한 시간적 순서를 갖고서 서로 계기하는 것—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고유한 경험을 갖게 되는 과정인데—을 의식함으로써만 내가 시간상에서 나의 현존을 의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내적 표상들에 대한 시간의 규정은 결코 끊임없이 변화하는 표상들의 흐름에 기대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시간의 선후를 판별하여 질서를 지우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척도 구실을 할 수 있는 고정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칸트는 ㉡을 통해, 모든 시간의 규정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의 고정자, 즉 시계의 구실을 하는 어떤 고정불변적인 것을 우리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현존 안에 있는 표상들은 끊임없이 잇따라 계기할 뿐, 그 어떤 고정된 기준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고정불변적인 것을 시간 그 자체에 귀속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칸트도 주지하였듯이, 시간은 그것만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지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A 182 / B 225) 즉, 시간은 그것이 독단적 전제에 의해 원래부터 자연스레 있는 것으로서 가정되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

7) ‘초월적 의식’과 ‘경험적 의식’의 관계는 이후 IV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지금의 논의에서 초점은 후자에 맞춰져 있지만, 후자는 어디까지나 전자에 의해 근거지어져야만이 그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부득이하게도 이 시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미리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A 105-110의 내용들도 아울러 참조해보도록 하라.

나 우리의 지각에 주어지는 자료들의 촉발에 의해서만 비로소 현시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잇따르는 표상들에 시간적 질서를 부여하고자 고정불변적인 것을 시간 그 자체에 귀속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언가의 촉발 없이는 도대체 경험할 수조차 없는 것에 일단 무조건적으로 매달리고 보는 불합리한 꼴이 되고 만다.⁸⁾ (Dicker (2008), p.82.)

결국 ㉠은 우리가 시간의 규정을 위해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현존을 의식하기 위한 매개가 될 이 표상들이 끊임없는 상호 잇따름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고정불변적인 것과 관련해서 나의 내적 표상들의 바뀔과 전변이 규정되어야만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다분히 바뀔과 전변의 상태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과 ㉢을 통해 구성된 하나의 대전제와 ㉠을 통해 구성된 하나의 소전제를 통해 자신의 첫 번째 논증의 귀결인 ㉣의 첫 번째 문장을 역설한다. 즉, 시간상에서 규정된 나의 현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정불변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고정불변성이 내 안의 것들에는 귀속될 수 없으므로 결국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에 귀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 밖에 있는 고정불변적인 것으로서 언급되는 사물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 칸트는 다시금 자신의 두 번째 논증을 꾸민다.

이제 칸트는 자신의 두 번째 논증을 위해 ㉣의 두 번째 문장을 대전제로 세운다. 그러나 이 대전제 역시 나의 경험적 의식을 위한 시간의 규정은 결국 내 밖에 있는 현실적 사물의 실존에 의해 가능하

8) 고정불변적인 것이 절대 시간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논변하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디커G. Dicker는 재판의 <관념론 반박>의 논증에도 이러한 사실이 추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험의 제1유추: 실체 고정불변성의 원칙>을 통해 칸트 스스로가 이미 수차례 확증한 내용을 굳이 <관념론 반박>에까지 끌고 와 재차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바로 나의 생각이다.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디커의 주장은 갈 길 바쁜 칸트에게 다분히 잉여적인 것을 요구할 뿐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A 182/B 225와 A 183/B 226을 참조해보도록 하라.

다는 ㉔의 첫 번째 문장의 주장만을 다른 말로 되풀이하고 있을 뿐,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소전제로 제시되는 ㉕은 경험적 의식과 이러한 경험적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의식, 즉 내 밖에 있는 사물의 실존에 대한 의식의 사이에 놓인 필연적 결합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하며 <관념론 반박>의 첫 번째 논증을 통해 제기됐던 고정불변적인 것으로서 사물의 본성에 대한 해명에 결코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논증이 점점 더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되어 가는 가운데 칸트는 ㉕을 자신의 두 번째 논증에 대한 결론으로 제시하며 <관념론 반박>의 논의를 마무리한다. 즉, 경험적 의식은 사물의 실존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를 바꾸어 말하면 나의 현존에 대한 경험적 의식이 동시에 내 밖에 있는 사물의 실존에 대한 의식이며, 그것도 간접적 의식이 아닌 직접적 의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결론은 비록 ㉔을 통해 제기됐던 ‘내 밖의 사물’이란 것의 본성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주지 못하지만, 나의 현존에 대한 의식과 외부 사물의 실존에 대한 의식의 결코 뗄 수 없는 필연적 연관을 직시함으로써, 주관적 현상주의를 멀리하면서도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로부터 일정정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즉, 칸트는 ㉔의 ‘내 밖에서 지각하는’이란 표현을 통해 결코 자신의 철학이 주관적 현상주의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고, 이후 계속되는 ‘현실적인 사물들의 실존’이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철학이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두 철학적 난점을 제거하는 칸트적 사유의 논리성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 두 딜레마에 대처하는 칸트의 논리는 서로 다른 두 의식, 즉 나의 현존에 대한 의식과 외부 사물의 실존에 대한 의식의 필연적 결합을 해명하는 것에 집중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 칸트는 우리의 참된 인식을 위해 내적 경험의 가능성은 반드시 외적 경험의 가능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후자는 전자에 못지않게 직접적으로, 아니 어떤 측면에

서 보면 후자는 전자에 비해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내적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외적 경험도 결국 확실성을 보장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칸트의 주장에서 다시 문제는 불거진다. 결국 우리 안의 무규정적 표상들에 대한 시간의 규정을 위해 필요했던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으로서 사물, 그것에 대한 구체적 해명 없이 어떻게 그것의 직·간접적 의식 여부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단지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이라고 막연하게 일컬어지기만 했던 사물의 본성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에 더 나아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의식되는 방식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궁극의 난점은 칸트를 다시 <관념론 반박>의 한 주석으로 이끌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 곳에 펼쳐진 칸트의 사유는 고정불변적인 것의 본성에 대한 물음을 애써 외면한 채, 다른 방식으로 <관념론 반박>의 논의를 마무리지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의 정리에서 외부 사물들의 현존에 대한 직접적 의식은 전제된 것이 아니라, 증명된 것이다. 이 [직접적] 의식의 가능성을 우리가 통찰하든 안든 간에 말이다. 이 [직접적] 의식의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내감만을 갖고, 아무런 외감도 갖지 않으며, [외부 사물과 관련해서는] 한낱 외적 상상력만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겠다(B 277).

칸트는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마지막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그는 데카르트적 회의주의가 제기했던 물음,⁹⁾ 즉 “내 밖에 놓인 고정불변적인 것의 현존은 단지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 순전히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FO) 하는 물음에 대해 부정한다. (Caranti (2006), p.320.)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써 그는 외감의 존재를 내세운다. 칸트에 따르면, 외감은 1차원적 ‘시간의 질서’에 따라 2차적 감각자료들을 질서지우는 내감과 달리, 3차원적 ‘공간의

9) 이하 논의에서, 까랑띠의 맥락을 좇아 이러한 물음을 ‘FO(Fatal Objection)’로 표기한다.

질서'에 따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1차적 감각자료들을 맞아 질서지우는 감성의 순수한 형식이다.¹⁰⁾¹¹⁾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감에 주어지는 대상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자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히 현시할 수밖에 없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칸트의 FO에 대처하는 철학적 방법은 이제 외감의 실질적 현존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으로 뒤바뀐다. 즉, 외감의 현존은 그것이 입증되기만 하면 곧바로 고정불변적인 외부 대상을 직접적으로 의식하기 위한 가능성을 확실히 보증해줄 수 있다고 칸트는 믿었던 것이다(김재호 (2004), p.27).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칸트는 외부 사물의 현존에 대한 직접적 의식은, 다시 말해 외감의 현존은 전제된 것이 아니라 증명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보다 호의적인 입장에서 칸트의 체계를 정당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내용을 하나의 정당한 증명으로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즉,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외감의 현존은 칸트의 초월적 사유에 기인해 이미 모든 논의들의 중심부에 가정되어 있는 독단적 전제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외감의 현존에 대한 칸트의 논의가 증명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외감의 현존을 통해 FO에 맞서는 그의 철학적 사유에는 다시 두 가지 정도의 결함이 엿보인다.

10) 이와 관련하여, 시간과 공간을 서로 구별하는 칸트의 다음과 같은 주장도 참조해보도록 하라. “시간은 오로지 하나의 차원을 갖는다. 즉, 서로 다른 시간들은 동시에 있지 않고 잇따라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공간들이 또한 잇따라 있지 않고 동시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A 31/B 47).

11) 앞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외적 경험이 내적 경험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 깊게 닿아 있다. 작위적인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의, 더 나아가 내감과 외감의 직접성 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나는 외감에 의해 이미 한번 음미된 연 후에 내감에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2차적 감각자료'와 아무 매개 없이 외감에 바로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1차적 감각자료'를 서로 구별해서 사용했다. 이후 논의의 진행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위의 두 감각자료를 구별해 사용하겠다.

먼저 칸트는 FO를 떨쳐내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 때문인지 상상력을 일상적 의미와 달리 너무 소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자료들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B 277). 예를 들어, 우리가 황금산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황금산을 구성하는 보다 근원적인 감각자료들—이 경우에는 황금, 산 등—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상력이 그것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경험적 요소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훨씬 유용하고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상력이 사전적 요소에 국한되어서만 기능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너무 상상력을 팔시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사전적 요소 없이 말 그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아무 구속 없는 상상력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칸트는 외감의 현존에 바탕을 둔 내적 경험의 외적 경험에 대한 필연적 의존을 통해 FO는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B xl) 여기에는 다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따른다. 부연컨대, 칸트는, 만약 외적 경험이 순전히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외적 경험은 내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영향은 내적 경험에까지도 미쳐 결국 내적 경험도 허구로 전락하고 말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를 통한 의심 이후에도 변함 없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던 내적 경험의 확실성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겠기에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외과 의사인 민석이는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숙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안실 쪽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영안실에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마침 그 날 따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영안실로 이어지는 전기 배선에 이상이 생겨 불도 아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할 수 없이 민석이는 불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영안실에 들어갔고 그 찰나 무언가 발길에 차이는 몽롱한 느낌을

받고서 그것은 사람의 시체라고 생각하여 무서워서 결국 줄행랑을 쳤다. 그 순간, 내리던 비가 그치고 전기 배선의 문제도 해결되어 영안실에 다시 불이 들어왔고, 민석이는 줄행랑을 치던 중에 자신의 발길에 차였던 물체가 알고 보니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때 마침 내일의 영안실 보수 공사를 위해 미리 놓여 있던 모래 포대라는 것을 알고 그만 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¹²⁾ (Caranti (2006), p.323.)

위의 예는 민석이가 원래 외적 경험 EE①(사람 시체)을 통해 공포라는 내적 경험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내용을 통해 살펴보니 실제로는 외적 경험 EE②(모래 포대)에 의해 공포라는 내적 경험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칸트의 주장에 맞서 웅변하는 바는, 비록 외적 경험이 이후 진리로 드러난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국 순전한 허구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내적 경험이 EE①과 연결된 경우에는 (t1) EE②와 연결된 경우에는(t2) 우리가 초월적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의 연결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경험적 기준에 의해서 두 경험의 연결을 판별하는 것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t1의 시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t2의 상황이 언제 도래할지, 아니 그러한 t2의 상황이 과연 도래할지 도래하지 않을 지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t1의 외적 경험을 통해—이 경우에는 이후 t2의 외적 경험 (EE②)이 드러나서 결국 t1의 외적 경험(EE①)은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지만—적절하지 않게나마 공포라는 내적 경험을 갖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은 t1의 시점에서 내가 진짜 내적 경험을 가졌던 경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칸트의 생각과 달리, 내적 경험과 외적 경험이 서로 필연적 연관의 관계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후자의 진리치와 전자의 진리치가 같지 않을 수도 있음을, 즉 후자의 진리치가 전자의 진리치를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¹³⁾

12) 위의 예는 까랑띠가 칸트의 주장에 대해 제기한 반례를 내가 현실적 상황에 맞게 다시 구성한 것이다.

이제 <관념론 반박>의 논증 구조를 통해 살펴 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FO에 대해 제법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고자했던 칸트의 노력은 결국 성공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관념론 반박>에 드러난 칸트적 사유를 쫓아가며 우선 시간의 규정은 고정불변적인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됨을 이해했고, 그러한 고정불변적인 것은 결코 ‘내 안’에 있을 수 없고 ‘내 밖’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지했다. 그러나 고정불변적인 것의 본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설명도 없이 칸트는 내적 경험과 외적 경험의 사이에 필연적 결합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을 내세웠고, 이후에는 외감의 현존을 통해 이 두 경험 모두가 결국 의식의 직접적 성격에 의해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맞서는 그의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렇지만, 설령 칸트의 전제를 모두 받아들여 외감의 현존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앞서 살펴왔던 두 가지의 비판 때문에 FO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고자하는 칸트의 노력은 이제 다시 새로운 방향에서 계속되어야만 함이 강조됐다. 이후 III에서부터 살펴보게 될 이러한 논의에 앞서, 이미 제기되었지만 아직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한 물음에 마저 대답하고 이 절의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자. 다시 이에 대해 묻자. 나의 표상들에 대한 시간의 규정을 가능하게 하는 고정불변적인 것은 무엇인가?

먼 길을 예들러 온 이러한 물음에 대해 칸트는 약간의 암시를 주고 있다. 분명 <관념론 반박>을 통해서 이러한 물음이 논의의 표면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는 고정불변적인 것에 우리의 외감을 통해 접근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정불변적인 것의 성격은 결국 ‘사물자체’가 아닌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러한 사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13) 까랑띠의 사례에서 보아지는 것과 같이 칸트는 <관념론 반박>의 두 번째 논증에서 주로 초점이 맞춰진 내적 경험과 외적 경험의 필연적 결합을 통해 결국 두 경험의 진리치에서의 동일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칸트의 의도는 까랑띠의 예를 통해 결국 내적 경험의 ‘참’이 보장되는데도 외적 경험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보아짐으로써 실패한다.

불거지게 된다. 즉, 고정불변적인 것이 결국 사물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라면, 어떻게 고정불변적인 것의 지속성이 현상의 끊임없는 계기성과 서로 양립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견 우리의 현상계 안에 고정불변적인 것이 있다는 칸트의 주장은 사물자체로서 고정불변적인 것의 실체성을 옹당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주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은 이후 그가 ‘초월적 실재론’이라고 일컬으며 비판했던 로크J. Locke의 관점과 하등 차이가 없게 된다. (A 369) 이러한 문제 때문에 칸트는 현상계 안의 고정불변적인 것에 대해 사물자체의 위격을 부여할 수 없었다. (Ewing (1967), pp.151-152.) 대신 그는 고정불변적인 것의 지속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성격을 우리의 현상계 안에서 조화시켜 보려 하는 또 다른 어려운 작업에 착수한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제2판의 <관념론 반박>을 통해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후 조각글들을 통해 <관념론 반박>의 불완전한 매듭을 다시 고쳐 지으려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결국 자신에 닥친 중요한 철학적 물음을 임기응변으로 넘겨보려 했던 칸트의 허술한 논리에 대한 응보였다. 이제 칸트의 사유는 보다 치밀해져야만 한다. 그리고 칸트는 현상계 안에서 고정불변적인 것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이러한 자신의 유일한 철학적 작업을 보다 의미 있고 날카롭게 진행함으로써 결국 스스로가 전비판기 시절부터 계속 씨름하여 왔던 FO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답하고자 한다.

III

이제 칸트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방향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다. 어떻게 우리의 내적 표상들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불변적인 것이 끊임없는 변화 중에 있는 현상계 안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의 지속성을 보장받게 되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그것은 늘 계기

하는 현상들과 더불어 있으면서도 나름 실체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 가이어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이후 조각글들에서 보아지는 칸트의 한 사유를 제시한다.

상상력은 (그리고 그것의 산물은) 그것 자체로는 단지 내감의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대한 경험적 의식은 단지 계기만을 포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계기는 단지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즉, 그것에 의해 계기적인 것이 동시적인 것이 되는 그러한 것—*das Beharrliche, womit jenes sukzessive zugleich ist*—에 의해 표상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자체] 가능하지 않다. 이 고정불변적인 것, 즉 그것에 의해 계기적인 것이 동시적인 것이 되는 그러한 것은 곧 공간[적인 것]이며, 그것은 또한 단지 순전한 상상력의 표상일 수 없고, 감각의 표상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지속적인 것은 결코 감성 중에 있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R 6313, AA 18:614)

위의 인용문을 통해 이제 칸트가 그동안 고정불변적인 것이라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던 것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그것은 현상 중의 계기적인 것을 바로 동시적인 것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반드시 공간적인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적 질서에 귀속된 내감에서 발견하는 것은 항상 ‘잇따라 있음’의 현상적 상태일 뿐인데, 이러한 현상들의 계기적 상태가 동시적 상태로 표상되기 위해서는 결국 공간적 질서에 귀속된 외감에서 발견되는 ‘결하여 있음’의 현상적 상태가 먼저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칸트는, 우리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실존을 이해하기 위해 내감의 형식인 시간을 외감의 형식인 공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B 292)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경험적 의식을 시간적 질서에 따라 규정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밖에 있는 고정불변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는 칸트의 기존 주장은, 계기적인 것을 위해 동시적인 것이 가정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으로, 다시 말해 시간성은 먼저 공간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간략하게 요약된다.

논의의 명확성 덕분에, 우리는 이제 <관념론 반박>을 통해서는 다만 추측하여 짐작할 수밖에 없었던 고정불변적인 것의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게 됐다. 즉, 고정불변적인 것을 통해 결국 칸트는 공간상의 현상으로서의 실체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물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 비로소 계기적인 것이 동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고정불변적인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 가이어는 위의 인용문을 더 강력하게 해석한다.

칸트의 진정한 주장의 의도는 이러하다: 즉, 표상들의 순전한 계기적 발생만으로는 이러한 계기의 인지를 위해 전혀 충분치가 않고, 이것은 우리의 고유한 경험 안의 각각의 계기적 표상들이 다만 어떤 고정불변적인 것의 각각의 계기적 상태들과 동시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에만 그렇게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Guyer (1987), p.306.)

가이어에 따르면, 칸트는 앞선 인용문을 통해 단순히 1차원적 시간성은 3차원적 공간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관념론 반박>의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칸트는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좀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한다. 즉, 그는 계기적인 것을 동시적인 것으로써 파악되게끔 만들어주는 고정불변적인 것의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해석하여, 그것의 의미를, 내 안에서 계기하는 내적 표상들 각각의 상태와 내 밖에서 계기하는 외적 표상들 각각의 상태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주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가이어의 해석에 따르면, 나의 계기적인 주관의 상태들 S1, S2, S3 [...] 등은 고정불변적인 것의 계기적인 객관의 상태들 O1, O2, O3 [...] 등과 서로 일대일로 대응됨으로써 나름의 시간적 질서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기적인 객관의 상태들은 시계와도 같은 시간의 고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전의 시간에 대한 객관적 상태의 표징 O1은 곧바로 나의 주관적 상태의 하나인 S1과 연결되고 이후의 시간에 대한 객관적 상태의 표징 O2는 곧바로 나의 또 다른

주관적 상태의 하나인 S2와 연결됨으로써, 결국 우리는 S1이 S2에 앞선다는 것을, 다시 말해 나의 경험들이 시간의 규정에 따라 질서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어의 칸트 해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나의 과거 표상들을 현재의 순간에 모두 꺼낼 수 있는 주관의 기억이 가정되어야만 한다. (Bennett (1966), p.204.) 비록 칸트는 <관념론 반박>의 논의 어느 곳에서도, 아니 이후 자신의 철학적 논의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기억의 작용에 대해 결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기억의 존재가 부정되면 과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애당초 박탈되기 때문에 칸트가 관념론 반박을 수행하는 과정에도 여전히 기억의 존재는 분명하게 가정된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오죽하면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결국 자아의 동일성조차도 인정하지 않기까지 이르렀던 흄도 기억의 존재는 그냥 전제하여 사용했겠는가? (Hume (1978), pp.8-9.) 이제 기억의 존재와 이제까지 논의했던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가이어의 해석을 통해 <관념론 반박>의 논증은 다시 아래와도 같이 보다 강력하고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증명]

㉞ 내가 나의 현존을 시간상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의식한다는 것은 곧 내가 현재 시점에서 한 데 모인 나의 모든 주관적 표상들 각각에 대해 시간의 질서를 지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㉟ 그러므로 시간 중의 경험적 자기의식은 무수히 많은 복잡한 표상 상태들을 마주하게 된다. 즉, 경험적 자기의식으로서의 나는 나의 과거 상태들도 표상하고, 나의 현재 상태들도 표상한다.¹⁴⁾ (이하 논의

14) 즉, 경험적 자기의식으로서의 나는 이미 지나간 내 과거의 상태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기억에 의한 것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의 상태’가 기억에 의해 다시 현재의 시점에 재생되어 나타나면 그것은 이미 과거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상태에 대한 표상’인 것이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이러한 구도에 맞추어 생각해볼 때, ‘현재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에 대한 표상’도 각각 분리해볼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맥락은 과거의 상태와 과거의 상태에 대한 표상의 구별에, 또는 현재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에

에서, 나는 전자의 표상을 'R-T'로 후자의 표상을 'R-N'으로 부르겠다. 이에 더해, 그것이 표상하는 나의 과거 상태를 'S-T'로 그것이 표상하는 나의 현재 상태를 'S-N'으로 부르겠다.)¹⁵⁾

㉔ 비록 'R-T'와 'R-N'이 나의 모든 내적 상태들을 표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표상들을 한 데 모아 갖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는 때에 대한 시간적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해, 나는 'R-T'가 실제로 'S-N'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S-T'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R-N'이 실제로 'S-T'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S-N'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결코 알 수가 없다.

㉕ 그러므로 내가 현재 시점에서 나의 내적 표상들을 한 데 모아 갖는 경우에, 나의 내적 상태들에 정확한 시간의 규정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계기적인 주관 상태들 각각이 결국 내가 지각하는 고정불변적인 것의 계기적인 객관 상태들 각각과 동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한다.

㉖ 만약 나의 주관 상태 'S-T'와 'S-N'이 각각 'O-S-T'(즉, 고정불변적인 것에 의한 나의 과거 객관 상태)와 'O-S-N'(즉, 고정불변적인 것에 의한 나의 현재 객관 상태)과 연결되어 계기하는 것으로서 파악되면, 이것은 곧 'S-T'는 'O-S-T'와 구별되고, 'S-N'은 'O-S-N'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과 구별은 결국 전자와 후자가 각각 상호 체계에서 인과적 힘에 의한 관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㉗ 따라서 이제, 고정불변적인 것의 계기적인 객관 상태들이 나의 계기적인 주관 상태들과 구별되는 것과 같이, 고정불변적인 것은 그것의 인과적 힘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험적 의식과 구별되어야만 한다. (Guyer (1987), pp.303-310.)

가이어에 의해 보다 탄탄하게 구성된 위의 새로운 관념론 반박에 기초하여, 포젤J. Vogel은 칸트 그 자신이 고정불변적인 것의 내적

대한 표상의 구별에 있지 않다. 우리의 목표는 관념론 반박의 일관된 논의에서 표명되었듯이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의 구별에 있다. 즉, 경험적 자아의 내적 상태들에 대한 시간의 규정에 있다. 다만, '과거의 상태'(S-T)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과거의 상태에 대한 표상'(R-T)을 필히 상정한 것이고, 이러한 구도에 맞추어 '현재의 상태'(S-N)와 '현재의 상태에 대한 표상'(R-N)도 상정한 것이다.

- 15) 현재 시점에서 나의 의식에는 무수히 많은 과거 상태들에 대한 표상들과 무수히 많은 현재 상태들에 대한 표상들이 있겠지만, 논의의 편의상 이러한 복수의 개념을 떼고 단수의 개념을 사용한다.

표상들에 대한 시간의 규정과 관련하여 대중 예시하고 지나친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준다. (B 277-278)

당신이 지금 해가 지는 것을 보며, 이와 동시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고 가정하자. 특별히 이 경우에, 당신은 불과 몇 시간 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보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㉔) 그러므로 지금 당신은 과거의 표상과 현재의 표상이 마구 뒤섞인 복잡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 -(㉕) 이제 문제는 발생한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당신이 불과 몇 시간 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 백일몽과 같은 한바탕의 꿈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에 의한 실제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㉖)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마음의 상태('S-N')가 해가 실제 지고 있는 것('O-S-N')과 서로 동시적인 것과 같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에 대한 나의 마음의 상태('S-T')는 해가 실제 중천에 떠 있었던 것('O-S-T')과 서로 동시적이다. 해는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두 장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해의 객관적 상태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주관적 상태들도 각기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해야 한다. -(㉗) 이러한 경우에, 결국 '해가 지고 있음'('O-S-N')이란 해의 객관적 상태는 '내가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있음'('S-N')이란 나의 주관적 상태와 결코 동일하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음'('O-S-T')이란 해의 객관적 상태는 '내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있음'('S-T')이란 나의 주관적 상태와 결코 동일하지 않다. 그 대신, 해의 객관적 상태들 각각은 나의 주관적 상태들 각각에 원인으로 작용한다. -(㉘) 그러므로 응당 해와 나는 서로 구별되어야만 한다. -(㉙) (Vogel (1993), p.883.)

포겔이 가이어의 해석을 토대로 구성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여기에서 고정불변적인 것으로서 의미되는 것은 바로 해다. 분명 이 해는 고정불변적인 것으로서 제시되어, 잇따라 계기하는 나의 내적 상태들의 밖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적 표상들에 대해 시간의 질서를 부여한다. 즉, 이 경우에 나는 해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S-T'가 'S-N'에 앞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의 예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자. 내가 나의 내적 경험들에 대해 시간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해 때문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엄밀하게 말해, 내가 나의 내적 경험들에 대해 시

간의 질서를 정당하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각각 해의 잇따르는 상태들에 의존하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는 고정불변적인 것인 해 때문에 나의 계기적인 내적 경험들의 시간적 순서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간적 순서가 부과되어 있다 간주되는 해의 계기적인 외적 상태들에 의해 그러한 시간의 질서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주관적 상태들[내적 경험들]이 각각의 객관적 상태들[외적 경험들]과 임의적인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가이어는 양자를 인과적 관계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는 경험적 의식으로서의 나와 고정불변적인 것이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함축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가이어의 주장에서 다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나의 내적 상태들에 대한 시간의 규정이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닌 고정불변적인 것의 잇따르는 상태들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면, 앞서 살펴봤던 <관념론 반박>의 논의와 다름없이 고정불변적인 것의 성격과 본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즉, 우리가 설령 백번 양보하여 고정불변적인 것의 잇따르는 상태들이 고정불변적인 것의 성격과 본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고정불변적인 것의 잇따르는 상태들과 같이 고정불변적인 것도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왜냐하면, 논의의 흐름상 고정불변적인 것도 그것의 여러 상태들과 같이 지각 가능하다[곧, 현상이다]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고, 또 그렇게 보이기까지도 하지만, 이치상 그것이 지각 가능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고정불변적인 것은 지속적이어야 한다[곧, 사물자체이다]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이어는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의 결합을 결국 인과관계로서 이해하려 하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논의는 다시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의 위험성은 이미 칸트도 지적하였기에, (A 368) 인과성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것

의 논의가 FO에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타 부가적인 장치들에 의해 보완되어야만 한다.

위의 두 어려운 문제에 차근차근 대답하며, 이제 이 절의 논의를 마치도록 하자. 첫 번째 물음부터 다시 되새기자. 고정불변적인 것은 지각 가능한가? 가이어가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지각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감각을 통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그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아무 쓸모없는 허구적 산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의미가 우리에게 존재론적으로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용하다 할지라도 인식론적으로는 유용하며 결코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만큼 절을 바꾸어서 까랑띠의 가이어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더욱 상세하게 다루어보겠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물음으로 돌아가자. 내적 경험의 외적 경험에 대한 인과적 의존은 <관념론 반박>의 논증을 통해 이미 드러났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고서도 잘 설명될 수 있는가? 가이어는 야속하리만치 이에 대한 논의에는 관심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커다란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즉, 가이어는 이후 칸트의 조각글들에서 드러난 사유의 편린을 좇아 외적 경험의 능동적 힘[곧, 원인]에 의해 내적 경험의 수동적 힘[곧, 결과]을 이해하는, 이에 더 나아가 고정불변적인 것의 능동성에 의해 경험적 자아의 수동성을 이해하는 다분히 <관념론 반박>의 향취 가득한 내용만을 계속해서 되새길 뿐, 더 이상의 어떤 발견음도 내딛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궁극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은 역설적이게도 가이어 자신이 더 잘 알고서 더 잘 지적하고 있다.¹⁶⁾ (Guyer (1987), pp.318-319.)

16) 전적으로 수동적인 경험적 자아에 능동적인 힘을 가진 고정불변적인 것이 작용하여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상태가 서로 인과관계로서 연결된다 하면, 상상력의 조작을 통해 양자의 허구적 관계가 가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사라지기 때문에 나름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다 하겠으나, 가이어도 잘 지적하였듯이 이 경우에는 인간 내적 힘을 통해 인식론적-존재론적 토대를 마련하려 하는 칸트의 철학적 시도가 모두 좌절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능동적 원인을 수용하기 위해 수동적

나의 독해가 옳다면, 가이어는 결국 칸트의 이후 사유를 통해 분명 기존 <관념론 반박>의 논의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서도 아직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바로 위의 두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절의 논의를 통해 앞 문단에서 지적됐던 두 번째의 어려움은 첫 번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단서가 찾아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가이어의 힘에 의해 다시 구성됐던 칸트의 관념론 반박은 일정정도 논리의 정합성을 갖추어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논의로 거듭나게 될 이 보아질 것이다.

IV

앞서 살펴봤던 R 6313에 대한 가이어의 창의적 이해를 통해 <관념론 반박>의 곳곳에 스며 보다 정확한 해석을 기다리던 칸트의 철학적 함축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밝혀지게 됐다. 그렇지만, 가이어의 칸트 해석 역시 <관념론 반박>의 첫 번째 논증[㉠, ㉡, ㉢의 첫 번째 문장]은 아주 말끔하게 정리하였지만, <관념론 반박>의 두 번째 논증[㉣의 두 번째 문장, ㉤, ㉥]은 여전히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제 보다 근본적 차원의 처방을 필요로 하게 됐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관념론 반박>의 두 논증은 각각 그 첫 번째가 고정불변적인 것의 인식론적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그 두 번째가 고정불변적인 것의 존재론적 실재성에 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정불변적인 것의 인식론적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불변적인 것의 존재론적 실재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이어는 앞서 살펴봤던 자신의

결과를 기다리는 외감의 존재를 다시 상정함으로써 결국 <관념론 반박>의 문제점을 반복하는 꼴이 되고 만다. (R 6313, AA 18:614)

논증을 통해, 고정불변적인 것과 고정불변적인 것의 잇따르는 상태들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혼용함으로써 전자에서 ‘동시성’을 찾고 후자에서 ‘계기성’을 찾아 이미 제기됐던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다시 말해, 그는 필요에 따라 전자와 후자를 모두 구별 없이 고정불변적인 것이라고 일컬음으로써 동시적이면서 계기적인, 또한 현상이면서도 사물자체일 수 있는 고정불변적인 것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자신이 증명했다 생각했던 고정불변적인 것의 실재성에 의존하여 고정불변적인 것의 계기적인 상태들의 실재성도 FO에 맞서 확실하게 보증함으로써 그것들이 각각 인과적 관계에 의해 내적 경험들과 일대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번째 문제도 역시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이미 지적되었듯이 고정불변적인 것과 고정불변적인 것의 잇따르는 상태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구별되면, 이러한 가이어의 주장은 결국 속임수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첫 번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며, 이에 더해 첫 번째 문제와 결국 불가불 연결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문제도 역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가이어에 대한 까랑띠의 비판 역시 나의 이러한 견해와 맥이 닿아 있다. 그는 내가 앞서 이미 가이어의 논변에서 지적했던 두 가지의 어려움을 재차 환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가이어의 해석에 따르면, 고정불변적인 것은 영구히 변전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칸트가 그것에 부과한 지속자로서의 역할을 전적으로 잃게 하는 것이 아닌가?

둘째, 경험적 자아의 내적 상태들과 고정불변적인 것의 외적 상태들이 인과적 관계로 간주되면, 이것은 결국 일종의 전능한 기만자 같은 것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¹⁷⁾¹⁸⁾ (Caranti (2006), p.341.)

17) 사실 까랑띠는 위의 두 반론 이외에도 마지막 반론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 그것은 앞서 인용했던 칸트의 R 6313에서 “das Beharrliche, womit jenes sukzessive zugleich ist”의 문장 중의 ‘zugleich’는 가이어가 해석했던 것과 같이 결코 형용사적으로 해석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그것의 의미는 부사적인 측면에서 되새겨야 보다 일관적이라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의가 모두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칸트가

내가 앞서 살펴봤고, 까랑띠도 이에 동조하였듯이, 가이어의 보다 세련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념론 반박>의 근본적 물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가? 칸트의 관념론 반박은 그것의 거창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나의 대답은 이렇다. 이제 칸트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너무 커져버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예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그는, 논리학의 원리, 특히 모순율에 의거하여 ‘사유’의 체계를 ‘존재’의 체계로 부당전용하려 했던 종래 형이상학 체계들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겨누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¹⁹⁾ 그렇기에, 이제 가장 먼저 주목되어야만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사유를 통해 증명될 수 있는 것과 증명될 수 없는 것의 명확한 구분이다. 이러한 구분을 우리의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까랑띠의 가이어에 대한 두 반론에 각각 적용해보도록 하자.

이제 ㉠가 적용된 물음은 이렇게 나타난다: 고정불변적인 것은 인간의 사유를 통해 입증 가능한가? 이에 대해 우리는 인식론적으로는 그렇고, 존재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다. <관념론 반박>의 첫 번째 논증에 대한 가이어의 해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듯이, 경험적 자아의 계기적인 내적 상태들에 대한 시간적 규정을 위해서는 필히 고정불변적인 것의 계기적인 외적 상태들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고정불변적인 것과 고정불변적인 것의 외적 상태들이 서로 구분되는 이상, 후자에 시간의 객관적 질서²⁰⁾를 부여하여 결국

<관념론 반박>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이후 조각글들에서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했다는 사실을 되짚어 볼 때, 조금 강요적인 측면이 있기는 해도 관념론 반박의 새로운 논의 방향을 제시한 가이어의 해석이 꽤 설득력이 있다고 믿기에, 이 점에서는 까랑띠의 주장에 따르지 않겠다.

18) 이하 논의에서, 가이어에 대한 까랑띠의 첫 번째 반론을 ‘㉠’로 두 번째 반론을 ‘㉡’로 약칭하자.

19) 이러한 내용은 특히, <부록: 경험적 지성사용과 초월적 지성사용의 혼동에서 생긴 반성개념들의 모호성에 대하여(A 260-292/ B 316-349)>를 통해 라이프니츠G.W. Leibniz의 철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20) 곧, ‘O-S-T’, ‘O-S-N’ 등등.

시간의 주관적 질서²¹⁾를 규정토록 하는 전자는 인식론적으로 파악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전자가 파악되지 않으면, 후자는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노출되어 결국 상상의 유희로 떠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후자와 달리 전자는 감각의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의 인식론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왜 존재론적 지위는 소극적으로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고정불변적인 것에 대한 정당화가 결코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의식’의 차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²²⁾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했던 데카르트조차 그의 『성찰』에서 인정하였듯이,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또 다른 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인식]하는 나를 항상 생각[의식]한다.²³⁾ (백종현 (1990), p.27.) 만약 ‘인식하는 나’를 그것의 근원에서부터 지지하는 ‘의식하는 나’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식은 그것의 참·거짓판별 여부를 떠나 애당초

21) 곧, ‘S-T’, ‘S-N’ 등등.

22) 비록 고정불변적인 것과 고정불변적인 것의 잇따르는 상태들을 서로 구별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는 했지만, 칸트의 논변에 대한 가이어의 창의적 해석은 바로 여기에서 관념론 반박에 대한 해결책을 암시한다. 즉, 칸트의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자는 우리에게 전혀 지각되지 않는 ‘사물자체’로, 후자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지각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고정불변적인 것이 이제 사물자체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관념론 반박>에서부터 줄곧 문제되어 왔던 시간 고정자로서의 사물에 대한 성격과 본성은 명명백백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고정불변적인 것이 이처럼 사물자체로 규정된다고 해서 결국 그것의 존재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미지의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논의에서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경험적 의식의 근원에 놓인 초월적 의식을 주시하는 순간, 그것의 형식적 구조에 의해 고정불변적인 것은 ‘의식적’으로 정당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경험의 표층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 만큼 ‘인식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바로 ‘인식론적 필요’에 의해 고정불변적인 것이 적극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존재론적 실증’을 요구받게 될 때 고정불변적인 것이 단지 소극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 이러한 두 ‘나’의 이중적 사유 구조는 “ego-cogito-me-cogitare-cogitatum”으로 표현될 수 있다.

성립조차 가능하지 않게 된다. 즉, 그것은 우리의 인식과 의식이 성립하기 위한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에 결국 인간의 사유 활동의 무의미로 귀착되고 만다. 칸트는 이러한 두 자아의 존재와 양자의 확실한 구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를 ‘경험적 자아’로 후자를 ‘초월적 자아’로 규정한다.

[...] 단순한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는 전혀 공허한 표상인 ‘나’가 있을 뿐이다. 이 표상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모든 개념들에 수반하는 한낱 의식일 따름이다. [...] 이것은 이 표상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불편함이다. 의식 자체는 한 특수한 객관을 판별하는 표상이 아니라, 표상을 인식이라고 불러야 하는 한에서의 표상 일반의 형식이니 말이다.
(A 346 / B 404)

초월적 자아는 우리의 모든 표상들에 항상 수반하며, 수반해야 하는 의식이다. 그렇기에, 그것은 결코 부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의 인식을 위해 다가가면 마치 신기루와 같이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표상으로 나타나고 만다. 하지만 우리의 사유 활동을 위해 그것의 존재는 부정됨이 없이 항상 의식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우리의 사고를 가장 근본에서부터 지지하는 형식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초월적 자아는 이제 경험적 자아가 그것의 규정을 위해 경험적 대상을 넘어 그것의 근원에 놓인 고정불변적인 것을 지각하려 하는 순간, 인식의 형식적 구조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에서 바로 고정불변적인 것의 실질적 현존을 요청한다. 다시 말해, 경험적 자아의 활동이 부정될 수 없는 한 결국 그것의 존재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초월적 자아는 경험적 자아가 자신의 시간적 규정을 위해 경험적 대상을 넘어 고정불변적인 것을 꼭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인식론적 필연성을 위해 우리에게 결코 경험되지 않는 고정불변적인 것이 실제 존재함을 인정한다. 결국 이러한 논증은 유한한 인간 이성이 자신의 경험적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면서도 초월적 의식의 한계에 다가가려 하는 참된 노력의 극한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증은

초월적 의식의 필연적 형식 구도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기에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일정정도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우리의 초월적 논변을 순전한 상상력에 의한 조작물로 치부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경험적 자아를 전제하는 경우 필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초월적 자아를 아예 부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유 활동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려 하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의 사유 활동의 필연적 형식 구조를 통해 FO에 대응하는 초월적 논의는 아래 캠프 스미쓰N. Kemp Smith의 주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통각의 초월적-근원적 통일은 단지 주관적일 뿐 아니라 객관적이기도 하다. 그것의 조건은 또한 바로 우리가 그것의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상들을 의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 그러므로 순수 통각의 통일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객관적 통일이라 말해질 수 있다. 첫째, 그것은 단지 주어지는 것에서의 통일의 발견을 통해 그것의 고유한 분석적 통일을 이해한다. 둘째, 잡다의 그러한 종합적 통일은 또한 바로 거기에서 [주관적] 표상들이 [객관적] 대상들과 관계될 계기를 얻게 되는 과정이다. (Kemp Smith (2003), pp.285-286.)

이제 기존의 논의와 캠프 스미쓰에 의해 재차 확증된 주장을 통해 ㉔가 적용된 물음도 자연스레 해결된다. 즉, 내 안에서 계기하는 주관적 상태들과 내 밖에서 계기하는 고정불변적인 것의 객관적 상태들은 각각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의한 방해 없이 인과적 관계로 서로 묶이게 된다. 객관적 지각이 주관적 지각에 일정하게 규정된 시간의 질서를 부과해야 하는 이상, 양자의 관계는 결국 힘에 의해 표현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경우에 유일하게 표현될 수 있는 힘은 기껏해야 한 쪽의 능동성과 다른 한 쪽의 수동성이 모두 고려되는 인과적 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는 여기서도 오직 형식적 구조 자체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FO의 공격을 피하게 된다.

요약컨대, 초월적 자아는 나의 내적 경험들에 의해 표현되는 경험

적 자아[주체, 주관]와 고정불변적인 것의 외적 경험들에 의해 표현되는 경험적 대상[객체, 객관]을 서로 인과적 관계로 정당하게 결합시켜 주는 인간의 사유 활동의 시발이다.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 의미가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의한 도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정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오직 인간 사유의 형식적 구조 자체만을 문제 삼고 그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초월적 통각에 의한 정당화는 결국 ‘의식적 정당화’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성의 내용을 문제 삼는 ‘인식적 정당화’와 구별되며, 결국 인식의 내용이 없이 의식의 형식만 드러내기 때문에 ‘극극적 정당화’가 아니라 ‘소극적 정당화’인 것이다.²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 정당화를 통해 인식적 정당화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24) 또 다른 심사위원께서 ‘의식적 정당화’와 ‘인식적 정당화’의 차이점과 양자의 관계가 실제로 구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다. 먼저 양자의 구별은 ‘의식’과 ‘인식’의 차이에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 싶다. 칸트에 따르면, 질료와 형식이 결합되면 하나의 인식을 이루는데 여기에서 인식이라 함은 바로 경험적 인식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이 올바른 것이 될 수 있도록 정당한 힘을 실어주는 과정을 나는 ‘인식적 정당화’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인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전한 허구는 아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질료의 주어짐 없이 오직 의식의 형식을 통해서만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에 정당한 힘을 실어주는 과정을 나는 또한 ‘의식적 정당화’라고 표현했다. 칸트의 통각의 가장 근원적인 분석적-종합적 통일의 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물론 두 정당화는 서로 구별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 두 정당화는 시간적 순서를 두고서 가능하게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두 정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적이면서 서로 뗄 수 없이 붙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의 의식과 인식의 구조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위해 우리는 두 차원의 정당화를 서로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모두가 다 주지하듯이, 두 정당화 가운데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의식적 정당화’이다. 비록 인식이 없으면, 다시 말해 ‘인식적 정당화’가 없으면 ‘의식적 정당화’는 이야기될 수도 없겠지만, 후자는 전자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는 이유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만 한다. 지면의 제한 때문에 논의를 여기에서 간략하게 끝맺지만, 이 두 차원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는 결코 쉽게 치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후 계속 이어지게 될 몇몇 논문들을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역시 본고의 핵심을 잘 짚어주시는 익명의 한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한다.

다시 말해, 의식적 정당화에 의한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대한 대응은 골수 회의론자들을 만족시킬만한 인식적 정당화를 결코 줄 수 없다.²⁵⁾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는 인간의 사유가 독단론과 회의론에 의한 유혹의 두 갈림길에 빠짐이 없이 바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논변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한한 인간의 사유 구조에 대한 형식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의식의 초월적 성격을 통해 <관념론 반박>의 고정불변적인 것을 적극적인 인식론적 입증과 소극적인 존재론적 입증의 형태로 보인 칸트의 사유는, 내가 지금껏 행한 논의가 성공적이라면, 가장 올바르면서도 가장 겸손한 인간의 철학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투고일: 2009. 04. 30.
 심사완료일: 2009. 05. 15.
 게재확정일: 2009. 05. 18.

백승환
 공군사관학교

25) 왜냐하면, 골수 회의론자들은 ‘의식적 차원’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조차도 모두 ‘인식적 차원’으로 환원시켜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제거할 수 없는 병적 징후이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초월적-형식적 논의는 경험적-질료적 논의로 드러나지 않기에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칸트의 관념론 반박은 이처럼 맹목적인 골수 회의론자들의 도전까지 막아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또한 적극적 논변이 아닌 소극적 논변이 된다.

참고문헌

- Kant, I.,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later d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vols.1-24, 27-29 (Berlin: Georg Reimer [later Walter de Gruyter], 1900-)
- _____,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von J. Timmermann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98).
- _____, *Critique of Pure Reason*, ed. trans. by P. Guyer & A.W. W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 1, 2 (서울: 아카넷, 2006).
- 김재호, 「칸트의 ‘관념론 논박’과 ‘초월적 관념론’」, 『칸트연구』 제14집, 2004, pp.1-38.
- 백종현, 「의식의 초월성: 칸트 초월철학에서 ‘초월적 의식’의 개념 형성과 후설의 이해」, 『후설과 현대철학』 (서울: 서광사, 1990, pp.1-50).
- Bennett, J., *Kant's Analyt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 Caranti, L., “Kant’s Criticism of Descartes in the “Reflexionen zum Idealismus” (1788-1793)”, *Kant-Studien* 97, 3 (2006), pp.318-342.
- Dicker, G., “Kant’s Refutation of Idealism”, *Nous* 42, 1 (2008), pp.80-108.
- Ewing, A.C., *A Short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 Guyer, P., *Kand and the Claims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Hume, D.,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 by L.A. Selby-Big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Kemp Smith, N.,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2nd ed. revised and enlarg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ress, [1923] 2003).

Vogel, J., "The Problem of Self-Knowledge in Kant's "Refutation of Idealism": Two Recent View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53, 4 (1993), pp.875-887.

ABSTRACT

Kant's Refutation of Idealism and the Transcendental Character of Consciousness

Baek, Seung-Hwan

Cartesian Skepticism, which landed Kant in difficulties since his pre-critical period, is more closely illustrated in a chapter titled the “Refutation of Idealism”, after being highlighted as a “Scandal of Philosophy” in the preface of his first *Critique*. But his argument, which focuses on the fact that our inner experience is necessarily dependent on our outer experience, fails because it gives no evidence of the real existence of outer sense. Then, does it mean that Kant should yield to Cartesian Skepticism, which has always threatened him since his pre-critical period? My answer is no. My ultimate goal, in this paper, is to give a positive answer to such negative criticisms. For my objective, in Section II of this paper, I will examine Kant's philosophical idea and its implicit meaning in the Refutation of Idealism carefully. (II) In Section III, I will show how Kant's refutation of idealism is possible through several *Reflexionen* in which some helpful information appears. This argument will be strongly supported by Guyer, who found some fatal errors in the Refutation of Idealism. (III) Finally, in Section IV, I will show that Guyer's well-supported argument collapses when Caranti's two objections rise. 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Kant's successful refutation of idealism is achieved only if we focus on the existence of transcendental apperception, which accompanies all our thoughts, though we cannot perceive it at all. (IV)

In sum, if my argument is completely successful, Kant's refutation of idealism appears convincing without succumbing to the temptation of dogmatism and skepticism in philosophy. It also signifies that Kant's refutation of idealism is completed by the 'conscious justification' in a 'negative' manner.

Keywords: Descartes, Kant, Empirical Self, Transcendental Self, Epistemic Justification, Conscious Justification